

##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서 경 현<sup>†</sup>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변인들의 성차를 알아보고, 데이트 폭력 행사 경험이 있는 집단과 데이트 폭력 행사 경험이 없는 집단간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통하여 데이트 폭력을 예언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남자 청소년들(29.1%)보다 여자 청소년들(41.9%)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본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했다. 여학생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남학생들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에서의 폭력경험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행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더 높았다. 남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을 예언하는 변인들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특성분노 및 데이트 폭력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 행사 경험, 데이트 폭력 피해가 데이트 폭력의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소년, 데이트 폭력, 특성분노, 분노표출

---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서경현,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교양교직학부  
e-mail) khsuh@syu.ac.kr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데이트 폭력 (dating violence) 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서양에서도 이성을 사귀면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폭력, 다시 말해 데이트 폭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물론 사회과학자들까지도 이성을 사귄 때는 대개 상대방의 결점을 덮어 주고 서로를 용서해 주는 평화롭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성과 사귀는 것이 서로 낭만을 나누고 달콤함을 추구하는 시기만이 아니라, 그와는 대조적으로 교제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분노, 질투, 혼란 등의 정서적 표출의 대상이 되는 시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예 : Henton, Cate, Koval, Lloyd, & Christopher, 1983), 데이트 폭력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현재까지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서양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성을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세 명중에 한 명 이상이 데이트 도중에 어떤 형태이든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Levy, 1990).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과 고등학생들(서경현, 이영자, 2001)의 경우에도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이런 연구들과 그밖에 여러 사례들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한 신문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소개하기 시작했다(중앙일보, 2001년 9월 14일자).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은 이성을 사귀면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 이런 정의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공격성향만에 초점을 맞추는데(Aizeman & Kelley, 1988; Makepeace, 1981; O'Keefe, 1997)에 반해, 어떤 학자들은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및 겁을 주는 행동까지 데이트 폭력에 포함시킨다

(Laner, & Thompson, 1982; Marshall and Rose, 1987). 그런데 데이트 폭력에 언어폭력을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징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언어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절하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Straus, 1979). 신체적인 폭력으로 보는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폭력(violence)'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Gelles and Straus, 1979). 본 연구자도 언어적인 폭력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정의하면서 신체적인 폭력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주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해 설명되는데, Riggs와 O'Leary(1989)에 의해 제안된 모델이 여러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데이트 폭력을 예언할 수 있는 변인들을 전후관계성 변인들(the contextual variables)과 상황적 변인들(situational variables)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전후관계성 변인들은 "상대방에게 과격하게 행동할까"를 예언해 줄 수 있는 좀 더 근원적인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까운 관계에서의 호전성,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갈등상태에서의 폭력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 과거의 폭력 가해 경험, 성격, 자극에 대한 민감성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상황적 변인들은 스트레스, 음주,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여부, 관계에 대한 만족, 폭력사용 후 이득에 대한 기대 등인데, 이것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타날까"를 예언해 주는 좀 더 직접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성친구를 사귀면서 폭력을 행하는 데는 남녀간의 차이가 있을까?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도 남녀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많았지만(Henton, et al., 1983; O'Keefe & Treister, 1998; Symons, Groer, Kepler-Youngblood, & Slater, 1994),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은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다(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 그런데 한국의 경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진 연구(서경현, 김봉진 외, 2001)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행한 남학생의 비율이 42.5%이었으나 여대생들의 비율은 31.2%로 나타나 남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여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여학생들(41.2%)이 남학생들(23.4%)보다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했다(서경현, 이영자, 2001). 그런데 이런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하여야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인 공격을 약간 더 많이 하지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힐 정도의 폭력은 남성들이 더 많이 행한다는 것이 밝혀진 연구들이 많았다(Archer, 2000, Hird, 2000, Molitor & Tolman, 1998). 그런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남녀 비율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폭력의 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예언해 줄 수 있는 변인들은 무엇일까? 우선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는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대표적인 예측변이다. 이성을 사귀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들 중 남성이 여성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Arias & Johnson, 1989; Henton, et al. 1983). 주목할 만 것은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폭력을 행할 확률이 높지만 이것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고 여성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Bookwala, Frieze, Smith, & Ryan, 1992; Foshee, Linder, MacDougall, Bengdiwala, 2001; O'Keefe, 1998; Stets & Pirog-Good, 1987).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 김봉진 등(2001)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데이트 폭력의 강력한 예측원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 중에 '폭력의 가족력'처럼 연구자들로부터 많이 거론되면서 서로 상충되는 연구결과들을 내어온 예언변인도 드물다. 폭력의 세대간의 전달의 존재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결론들을 도출(導出)해 냈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부모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결과를 얻었는가 하면(DeMaris, 1987; Foo & Margolin, 1995; Foshee, Bauman, & Linder, 1999; O'Keefe, Brockopp, & Chew, 1986; Riggs, O'Leary, & Breslin 1990; Smith & Williams, 1992),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둘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찾아낼 수 없었다(Comins, 1984; Follette & Alexander, 1992; Riggs & O'Leary, 1996; Stets et al., 1987). 부모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노출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련성에서도 남녀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여성들에게서보다 남성들에서 훨씬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DeMaris, 1987; Foo et al., 1995; O'Keefe, 1997; Tontodonato & Crew, 1992), 한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Sigelman, Berry, & Wiles, 1984).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들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노출 중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만이 남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을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김봉진 외, 2001). 그런데 한국 고등학생들 중에는 여학생들에게서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의 목격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의 예언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서경현, 이영자, 2001). 자녀학대 피해와 데이트 폭력과의 관련성은 어떤 연구들에서는 남녀 차이 없이 강하게 나타났지만(Sigelman et al., 1984; Smith et al., 1992), 여성들에게서만 강한 연관성을 보인 연구가 있었는가 하면(Tontodonato et al., 1992), 남성에게서만 강한 연관성을 찾아낸 연구들도 있었다(Burke, Stets, & Pirog-Good, 1988; Marshall & Rose, 1988). 그런가 하면 다른 연구들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폭력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련성을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서경현, 김봉진 외,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Foo, et al., 1995; O'Keefe, 1997; O'Keefe, et al., 1986; Riggs, et al., 1996). 이런 상충되는 연구 결과들로 인해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는 아직 일관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O'Keefe(1997)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노출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예측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더 잘 예언해 주었다. 형제, 자매, 친구, 학우들과의 폭력 가해 경험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 후속 연구들에서도 폭력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경현, 이영자, 2001; Spencer & Bryant, 2000).

그렇다면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인들 외에 데이트 폭력을 예언해 줄 만한 변인들은 없는 것일까? 분노와 폭력의 관계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

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최근의 예를 들더라도, 특성분노가 청소년 폭력의 예언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으며(Cornell, Peterson, & Richards, 1999), Myers와 Monaco(2000)도 일반 청소년들보다 청소년 성폭행 살인자들이 높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수준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성분노 수준에서 특별히 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근 들어, 필자 외에도 몇몇의 연구자들이 분노가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데이트 상대를 조정하고 싶어하고 분노표현을 억제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데이트 폭력을 더 자주 행한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가 있었고(Follingstad, Bradley, Laughlin, & Burke, 1999),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특성분노와 분노표출 수준이 높고 분노통제 수준은 낮다고 증명된 연구가 있었다(Dye & Eckhardt, 2000). 한편, 최근 한 연구에서는 분노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분노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과의 친밀감은 적음에 반해 동성(同性)친구뿐 만 아니라 이성친구를 많이 사귀며, 데이트도 더 자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Silver, Field, Sanders, & Diego, 2000). 몇 안 되는 분노와 데이트 및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인들 외에도 분노 및 분노표현이 데이트 폭력을 예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많은 고등학교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대안프로그램에서 수학(修學)하고 있다. 이런 고등학교 대안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James, West, Deters, & Armijo, 2000). 현재 미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와 함께 예방책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Foshee, Bauman, Greene, Koch, Linder, & Macdougell,

2000; Weisz & Black, 2001) 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빠른 중재가 피해를 줄인다는 결론을 내리고(Henderson, 2000), 고등학교나 그 이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분노가 데이트 폭력의 예언변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된다면 분노관리프로그램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을 예언할 수 있는 변인들을 올바르게 구명(究明)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술해 왔던 일련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과 그것과 관련된 변인들에는 성차가 존재하는가? 둘째,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에 있어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데이트 폭력과 그와 관련된 변인들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마지막으로, 분노를 포함한 어떤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이 제기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이성을 사귀는 가운데 겪는 폭력과 사회학습이론의 전후관계성 변인에 기초한 그것의 예언기대변인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남녀간에 차이를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을 예언하여 줄 수 있는지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 방 법

### 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4곳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와 검사지는 800여명의 학생들에게 주어졌으나 그 중에 463명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수거한 463부의 자료 중에서 이성친구와 데이트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자료들과 불완전한 자료들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상당히 많은 질문들에 응답하면서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분노척도(특성분노 및 분노표현 하위척도들) 문항 모두에 동일한 점수를 표시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도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남학생 110명과 여학생 124명으로 234명만이 채택되었다. 대상자들의 연령은 15세에서 20세( $M = 17.44$ ,  $SD = .65$ )까지 분포되어 있다. 피험자들이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음을 알렸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에 소비한 시간에는 개인차는 있었으나 약 30분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변량분석과 logistic 회귀분석이었다. 데이트 폭력에서 언어폭력은 배제하고 신체적인 폭력만으로 제한하였고, 회귀분석에는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중에 분노표출만을 예언기대변인으로 포함시켰다.

## 조사 도구

### 분노 척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판 상태 특성 분노 표현 척도(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에서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상태 특성 분노 표현 척도는 Spielberger(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한국 문화에 맞도록 표준화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분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태 분노(10 문항)와 특성 분노(10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 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노 억제(8 문항), 분노 표출(8 문항), 및 분노 통제(8 문항)를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 분노와 분노 표현 척도(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는 빈도로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1--'거의 전혀 아니다,' 2--'가끔 그렇다,' 3--'자주 그렇다,' 그리고 4--'거의 언제나 그렇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의 Cronbach alpha 값은 모든 하위척도에서 .90 이상을 나타냈다.

### 갈등척략 척도

한국어로 번안된 Straus의 갈등척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1979)가 데이트 폭력 가해, 데이트 폭력 피해, 부모간의 폭력 목격, 자녀 학대의 피해,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목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번역 후에 대학의 재직중인 2명의 영문학과 교수들로부터 감수되었다. 본 척도는 자신이 갈등상황에서 이성친구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이성친구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아버지가 갈등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어머니가 갈등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

항), 아버지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어머니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 타인이 갈등상황에서 타인에게 사용했던 책략들(20문항)이 측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없다', 2--'한 번', 3--'한 번에서 세 번', 4--'네 번에서 다섯 번', 5--'다섯 번 이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1번에서 20번까지가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어떤 것을 던졌다', '떠밀거나 잡거나 찢었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다', '심하게 구타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10문항들의 Cronbach alpha 값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88, 데이트 폭력 피해가 .90,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 목격이 .88,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폭력 목격이 .82,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83,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 .76, 타인이 타인에게 행하는 폭력 목격이 .92이었다.

### 폭력정당화 척도

데이트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의 폭력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1995)를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여자들이 8가지 상황하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대 그러면 안 된다', 2--

‘심하지 않으면 괜찮다’, 3-‘그럴 수도 있다’, 4-‘맞을 짓을 했으니 당연하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8가지 상황들은, 1) 그/그녀가 헤어지자고 위협할 때, 2) 술 취해 정신 나간 짓을 할 때, 3) 논쟁을 하다가 그/그녀가 먼저 때릴 때, 4) 상대방이 자신을 속인 것이 드러났을 때, 5) 자신을 욕이 섞인 호칭으로 불렀을 때, 6)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노닥거릴 때, 7)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 때, 8)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할 때로 묘사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8에서 32까지이다. 폭력정당화 척도의 Cronbach alpha값은 .86을 나타냈다.

**질문지**

인구통계학적 자료, 데이트 기록 및 폭력 경험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가 참여자들에게 주어졌다. 질문지에는 여러 가지 데

이트 기록들을 묻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폭력 가해 경험의 정보를 얻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싸운 경험을 묻는 3문항을 사용하였는데, 5점 평정척도이고 점수의 분포는 0에서 12까지이다.

**결 과**

**데이트 폭력과 관련변인들의 성차**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이성친구를 사귀어 오면서 행했던 폭력과 그와 관련된 변인들의 남녀 평균,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설명해 주는 F값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신체적 폭력 점수 채점을 위해서는 각 문항의 점수에

표 1. 데이트 폭력과 관련변인들의 남녀 평균, 표준편차 및 F값들

변인	범위	남 (n = 110)			여 (n = 124)			F
		%	M	SD	%	M	SD	
부 → 모 폭력 <sup>a</sup>	0-40		2.00	4.95		2.55	5.92	.56
모 → 부 폭력 <sup>b</sup>	0-40		.79	2.90		1.22	3.29	1.10
부 → 본인 폭력 <sup>c</sup>	0-40		2.01	4.14		2.08	4.36	.02
모 → 본인 폭력 <sup>d</sup>	0-40		1.84	3.49		1.82	3.47	.09
폭력환경에 노출	0-40		4.77	7.36		3.08	6.35	3.56
학교폭력 경험	0-12		4.76	3.47		2.44	2.86	31.62***
폭력 수용태도	8-32		12.02	5.01		13.47	5.19	4.71*
데이트 폭력 피해	0-40		1.46	5.29		.88	2.73	1.17
데이트 폭력 가해	0-40		2.06	4.81		2.58	5.94	.53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0-1	29.1	.29	.46	41.9	.42	.50	4.22*

\* p < .05. \*\* p < .01. \*\*\* p < .001.

주. <sup>a</sup>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sup>b</sup>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sup>c</sup> 아버지로부터의 자녀학대, <sup>d</sup>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

서 1을 뺀 후 모두 더하여서 환산하였다. 데이트 폭력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1번에서 20번 문항들에서 한 번 이상이라도 폭력을 행했다고 표시했으면 1을 아니면 0으로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부호화된 점수는 이후에 logistic 회귀분석에서도 사용되었다.

데이트 폭력의 점수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한번이라도 데이트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29.1%이었고 여학생은 41.9%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253) = 4.22, p < .05$ . 이런 결과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남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성을 사귀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세 명중에 한 명 이상이 데이트 도중에 신체적 폭력을 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네 가지 종류의 가정폭력(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아버지로부터의 자녀학대,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경험에서는 유의한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신체를 이용하여 싸워 본 경험은 비교적 커다란 남녀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는 학교에서 신체적인 싸움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53) = 31.62, p < .001$ . 하지만 폭력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F(1, 253) = 4.71, p < .05$ .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에서는 유의한 남녀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53) = 1.71$ .

###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에 따른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의 차이

표 2에는 데이트 폭력을 행해 본 경험이 한번

표 2.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에 따른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들

변인	비폭력 <sup>ε</sup> (n = 150)		폭력 <sup>ι</sup> (n = 84)		F
	M	SD	M	SD	
특성분노	23.47	7.92	28.73	7.62	24.39***
분노억제	20.41	6.70	20.26	6.78	.03
분노표출	19.08	6.19	22.48	6.61	15.44***
분노통제	20.63	6.55	20.29	6.67	.14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sup>ε</sup>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자,

<sup>ι</sup>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자

이상 있는 청소년들과 데이트폭력을 행해 본 경험이 한번도 없는 청소년들의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이 제시되어 있다. 데이트 폭력을 행해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의 특성분노 수준( $M = 23.47, SD = 7.92$ )이 데이트 폭력 행한 경험이 한번도 없는 자들의 특성분노수준( $M = 28.73, SD = 7.62$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253) = 24.39, p < .001$ . 또한 데이트 폭력 행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분노표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53) = 15.44, p < .001$ . 그러나 분노억제 수준과 분노통제 수준은 데이트 폭력 행사 경험이 있는 자들과 데이트 폭력 행사 경험이 없는 자들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를 어떤 변인들이 예언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남녀 두 집단을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예언기대변인에는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아버지가 어머니에



표 3.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변인	남					여				
	B	S.E.	Wald	Sig	Exp(B)	B	S.E.	Wald	Sig	Exp(B)
부 → 모 폭력	.25	.122	4.28	.039	1.28	-.36	.162	5.00	.025	.69
모 → 부 폭력	.67	.505	1.74	.187	1.95	.45	.233	3.79	.052	1.58
부 → 본인 폭력	-.30	.179	2.83	.093	.74	-.12	.117	1.09	.297	.89
모 → 본인 폭력	.07	.098	.58	.447	1.08	.06	.112	.31	.578	1.06
폭력환경에 노출	.12	.059	4.45	.035	1.13	.19	.069	7.80	.005	1.21
학교폭력 경험	-.17	.111	2.34	.126	.84	.23	.100	5.25	.022	1.26
폭력 수용태도	.04	.070	.40	.525	1.05	.06	.057	1.19	.275	1.06
특성분노	.15	.064	5.55	.018	1.16	.05	.064	.55	.457	1.05
분노표출	-.11	.073	2.36	.125	.89	.63	.081	.61	.434	1.07
데이트 폭력 피해	.83	.338	6.04	.014	2.29	1.19	.373	10.08	.001	3.27

게 행하는 폭력 목적,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아버지로부터의 자녀학대 피해, 어머니로부터의 자녀학대 피해, 폭력적인 환경에의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폭력 수용태도, 데이트 폭력 피해 외에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이 추가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p < .05$ ),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p < .05$ ), 특성분노( $p < .05$ ), 및 데이트 폭력 피해( $p < .05$ )가 남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예언변인들로 나타났다. 특성분노는 유의한 수준의 예언변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Wald = 3.55. 여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예언해 줄 수 있는 변인들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p < .05$ ),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p < .01$ ),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p < .05$ ), 데이트 폭력 피해( $p < .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 남

학생들의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는 특성분노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데이트 폭력 점수가 종속변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기대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 여부는 예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데이트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집단간의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을 포함하여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전후관계성 변인들을 예

언기대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데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세 명중에 한 명 정도가 사귀는 이성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했다고 보고하여 우리나라 남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을 사귀는 동안 폭력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Foshee 등(1996)과 Plass 등(198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서경현, 김봉진 외, 2001)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서경현, 이영자, 2001).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 접수에서는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남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의 내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근 한 메타분석(Archer, 2000)에서는 이런 결과를 해석하면서 여성들의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데이트 폭력이 질적으로는 더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양적인 연구들에서 데이트 폭력의 질적인 면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질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도 앞선 일련의 연구들(Henton, et al. 1983; Arias & Johnson, 1989)에서 데이트 폭력을 행했거나 데이트 폭력에 피해를 당했던 경험자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호의적이었다는 결과와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그 연구들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더 빈번하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을 행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의 특성분노 수준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특성분노 수준보다 높은 것을 나타난 결과는 Dye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분노표출 수준이 높다고 나타난 결과도 Follingstad 등(2000)과 Dye 등(2000)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던 것이다. 분노억제 수준과 분노통제 수준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자들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자들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지만, 이런 결과는 분노와 분노표현 중에서 분노표출이 데이트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자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특성분노 및 데이트 폭력 피해로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여자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예언하는 변인들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 폭력환경에 대한 노출,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 데이트 폭력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목적이 데이트 폭력의 예측원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사이에 행해지는 폭력 목적이 데이트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일련의 연구들(예: O'Keefe et al., 1986; Foshee et al., 1999 등)과 같은 결과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이라는 것이 흥미를 끈다. 이런 결과로 추론해 보면, 남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보며 학습된, 다시 말해 관찰 학습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여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보며 남자는 여자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방어적 행동일 수도 있다.

폭력적 환경에 대한 노출이 남녀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의 예측원으로 나타난 것은 O'Keefe (1997)의 연구 등과 일관된 결과를 얻은 것이다.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예측원으로 나타난 것도 Riggs 등(199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운동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특성분노가 남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예측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분노조절 훈련이나 분노관리 프로그램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남녀 모두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면 데이트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생소한 결과는 아니며, 서경현, 김봉진 등(2001)과 서경현, 이영자(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여학생들은 어머니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여 갈등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자기방어로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Molitor와 Tolman의 연구(1998)에서도 여성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데이트 폭력 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들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도 상황적 변인들 중에 상대방의 공격 행동, 다시 말해 데이트 폭력 피해가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의 더 강력한 예측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더 지지되었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데이트 폭력의 피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추후연구의 필요를 실감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수준도 대학생들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진국들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및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을 따로 마련하며 해결에 힘쓰고 있다. 데이트 폭력 예방은 지난 20여 년 동안 증명된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데이트 폭력 예언변인들을 제어하므로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현재까지 데이트 폭력 중재는 데이트 폭력 피해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치유해 주고 가해자로부터 보호해 주는 수준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지는 않았으나 분노가 데이트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후속 연구들에 의해 확실시 될 경우, 연애평력 가해자나 데이트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분노관리 훈련을 시킨다면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평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60-78.
- 중앙일보 (2001, 9, 14).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다. 50면.
- Aizeman, M., & Kelley, G. (1988). The incidence of violence and acquaintance rape in dating relationships among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 305-311.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 651-680.
- Arias, I., & Johnson, P. (1989).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intimate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98-307.
- Bookwala, J., Frieze, I. 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297-311.
- Burke, P. J., Stets, J. E., & Pirog-Good, M. A. (1988). Gender identity, self-esteem an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53, 272-285.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Cornell, D. G., Peterson, C. S., & Richards, H. (1999). Anger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mong incarcerate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108-115.
- DeMaris, A. (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8, 291-305.
- Dye, M. L., & Eckhardt, C. I.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 337-350.
- Follette, V.,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 (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Victims*, 14, 365-380.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3.
- Foshee V. A., Bauman, K. E., Greene, W. F., Koch G. G., Linder, G. F., & MacDougall J. E. (2000). The Safe Dates Program: 1-year follow-up resul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 1619-1622.
- Foshee V. A., Linder, G. F., & MacDougall J. E., & Bangdiwala, S.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reventive Medicine*, 32, 128-141.
- Gelles, R. J. & Straus M. A.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549-581.
- Henderson, C. W. (2000). Effects of Dating Violence Studied. *Medical Letter on the CDC & FDA*, 11/12/2000, 2.
- Henton, J., Cate, R., Koval, J., Llyod, S., & Christopher, F. (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467-482.
- Hird, M. J. (2000).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ating aggression in the U. K. *Journal of Adolescence*, 23, 69-78.

- James W. H., West, C., Derers K. E., Armijo, E. (2000). Youth dating violence. *Adolescence*, 35, 455-465.
- Laner, M. R., & Thompson, J. (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ing couples. *Deviant Behavior*, 3, 384-388.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Makepeace, James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rshall, L. L., & Rose, P. (1988). Family of origin and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414-18.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 119-134.
- Myers, W. C., & Monaco, L. (2000). Anger experience, styles of anger expression, sad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pathy in juvenile sexual homicide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45, 698-701.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O'Keefe, M., Brockopp, K., & Chew, E. (1986). Teen dating violence. *Social Work*, 31, 456-468.
- O'Keefe, N. K., & Treister, L. (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Are the predictors different for males and females? *Violence Against Women*, 4, 195-223.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Riggs, D. S., Murphy, C. M.,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Riggs, D. S., & O'Leary, K.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Sigelman, C. K., Berry, C. J., & Wiles, A. (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Silver, M. E., Field, T. M., Sanders, C. E., & Diego, M. (2000). Angry adolescents who worry about becoming violent. *Adolescence*, 35, 663-669.
- Smith, J. P., & Williams, J. G.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153-165.
- Spencer G. A., & Bryant S. A. (2000). Dating violence: a comparison of rural, suburban, an urban tee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 302-305.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ymons, P. Y., Groer, M. W., Kepler-Youngblood, P., & Slater, V. (1994).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7, 14-23.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 Victims*, 7, 3-14.
- Weisz, A. N., & Black, B. M. (2001). Evaluating a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 89-101.
- 1 차원고 접수일 : 2002. 2. 28.  
수정원고 접수일 : 2002. 4. 6.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5. 31.

K C I

## The Role of Anger and Variables from Social Learning Theory in Inflicting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Suh, Kyung Hyun

Division of Liberal Art & General Education Samyook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of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and related variables, and examined the difference in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between those who have inflicted dating violence and those who have not. Results indicated that female adolescents(41.9%) reported experience of inflicting dating violence more frequently than male adolescents(29.1%) did. The girls were more positive toward violence than the boys, while the boys were more expressing aggression at school than the girls were. Adolescents who had inflicted violence toward their dating partners had significantly higher trait anger and anger-out than adolescents who had no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father to mother violence, community violence, trait anger, and recipient of dating violence are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for male, while father to mother violence, community violence, history of violence, and recipient of dating violence are predictors for female.

*key words* : adolescents, dating violence, trait anger, anger-out